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의 메시지의 연관성: 성전과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김래용(협성대)

1. 서론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의 연관성은 2개의 방향으로 고찰되었다. 하나는 12소예언서의 통일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의 메시지와 표현의 연관성이 주장되었다. 하우스(Paul R. House)는 12소예언서의 통일성을 메시지 중심으로 고찰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처음 6권(호세아서-미가서)은 죄에 대한 포괄적인 논쟁을 다루고, 이어지는 3권(나훔서-스바냐서)은 죄에 대한 형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며, 마지막 3권(학개서-말라기서)은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일관된 패턴을 다룬다고 보았다.¹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의 연관성을 회복이라는 주제로 본 것이다. 노갈스키(James Nogalski)는

* 이 연구는 2025년도 협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25-0009).

1 Paul R. House, *The Unity of the Twelve* (JSOTSup 97; Sheffield: Almond Press, 1990), 63-109.

12소예언서의 통일성을 캐치워드 현상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12소예언서의 한 책의 끝에 나타나는 캐치워드가 다음 책의 처음에 나타나 서로를 잇는 역할을 한다며, 각 책의 관련 구절들을 새롭게 번역하였다. 그는 학개서, 스가라서, 말라기서와 관련하여 학개 2장 20-23절과 스가랴 1장 1-11절의 연관성, 그리고 스가랴 8장 9-23절과 말라기 1장 1-14절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3권의 책이 통일성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² 르큐르(Jason T. LeCureux)는 12소예언서의 통일성을 히브리어 단어 ‘슈브’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개서, 스가라서, 말라기서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그는 이사야서에서 ‘시온/예루살렘’이 책 전반에 걸쳐 분포하는 것처럼, 12소예언서에서도 ‘슈브’ 개념이 전체적으로 등장하며, 특히 서두(호세아)와 결말(스가랴-말라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학개서에서 ‘슈브’는 징벌의 때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데 사용되고, 스가라서에서 ‘슈브’는 물리적 귀환(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닌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며, 말라기서에서 ‘슈브’는 단순한 회개의 요청이 아닌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과 깊이 연결된다고 보았다.³

이러한 간접적인 연구와는 달리 일부의 학자들은 학개서, 스가라서, 말라기서의 직접적인 연구를 통해 3권의 책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피어스(R. W. Pierce)는 학개서, 스가라서, 말라기서의 본문 형태에서 식별할 수 있는 5개의 ‘문학적 연결 고리’의 조사를 통해 3권의 책이 형태와 메시지에 있어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관찰

2 James Nogalski, *Literary Precursors to the Book of the Twelve* (BZAW 217; Berlin: Walter de Gruyter, 1993), 20-57.

3 Jason T. LeCureux, *The Thematic Unity of the Book of the Twelve* (HBM 41;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2), 40-240.

한 5개의 문학적 연결 고리는 다음과 같다.⁴ (1) 학개서와 스가랴 1-8장의 연대(‘다리오 왕 제2년’)의 공통성, (2) 선지자 스가랴와 연관된 자료들(1-8장의 밤의 환상과 설교, 9-11장과 12-14장의 신탁) 사이의 문학적이며 주제적 통일성, (3) 스가랴 9-11장과 12-14장과 말라기 1-4장을 시작하는 신탁들의 공통된 제목(מִשָּׁא רַבְרָב־יְהוּדָה), (4)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의 설교와 환상과 신탁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질문과 대답 구조(“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학 1:4];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스 1:9];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말 1:2]). (5)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의 공통된 내러티브 장르의 사용. 이러한 주장 이후에 피어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3권의 예언서에서 주제적 발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는 3권의 책이 주전 520-480년경의 초기 포로 귀환기 유대교를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문학적 통일성을 형성한다고 보았고, 또한 선지자들의 설교, 환상, 예언적 선언으로 구성된 이 책들이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색채를 띠면서 남은 자 공동체의 냉엄한 초상화를 그려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⁵ 투엘(Steven S. Tuell)은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에스겔서에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연관성을 설명하였다. 특별히 그는 4개의 가능한 연결점(학개-스가랴서에 나타난 성전과 제의, 연대 문구, 스가랴의 환상 보고, 스가랴서의 1인칭 사용)의 조사를 통해 학개-스가랴서가 에스겔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면서 특별히 스가랴 혹은 그의 가까운 제자가 학개-스가랴서의 편집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⁶ 크레이그

4 R. W. Pierce, “Literary Connectors and a Haggai/Zechariah/Malachi Corpu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27 (1984), 277-289.

5 R. W. Pierce, “A Thematic Development of the Haggai/Zechariah/Malachi Corpu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27 (1984), 401-411.

6 Steven S. Tuell, “Haggai-Zechariah: Prophecy after the Manner of Ezekiel”, Paul L. Redditt and Aaron Schart (eds.), *Thematic Threads in the Book of the Twelve* (BZAW 325; Berlin:

(Kenneth M. Craig)는 학개서와 스가라서가 표면적으로 다리오 왕의 통치를 배경으로 하고, 유다의 회복과 재건에 관심하며, 동일한 인물(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히 4종류의 독특한 질문 형식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한 4종류의 질문 형식은 (1) 수사적 질문 형식(학 1:2, 4//속 1:5b, 6a; 3:2), (2) 연속적인 질문 형식(학 2:3(3개의 질문들)//속 7:5-7(3개의 질문들)), (3) 줄거리를 진전시키는 질문 형식(학 1:9//속 1-6장), (4) 대상이나 인물의 숫자를 늘여가는 질문 형식(학 2:12, 14, 16, 19//속 1:12; 7:3, 5-7) 등이다.⁷ 이러한 독특한 질문 형식을 가지고 학개서와 스가라서가 메시지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학자들은 학개서, 스가라서, 말라기서의 연관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찰하였다. 12소예언서의 통일성에 초점을 맞춘 학자들은 이 3권의 예언서의 연관성을 12소예언서 전체와 관련하여 메시지(회복), 형식(캐치워드), 독특한 개념(슈브)을 통해 고찰하였다. 반면에 학개서, 스가라서, 말라기서에 초점을 맞춘 학자들은 이 3권의 예언서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연관성보다는 2권의 책의 형식(학개서와 스가라서의 연대, 스가라 9-11장과 12-14장과 말라기서를 시작하는 '맛사') 혹은 3권의 책의 형식(질문과 대답, 내러티브 장르)에 초점을 맞추었고, 메시지의 경향(부정한 색채, 냉엄한 초상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학개서, 스가라서, 말라기서 3권의 책이 어떠한 주제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메시지를 구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한마디로 학개서, 스가라

Walter de Gruyter, 2003), 273-291.

7 Kenneth M. Craig, "Interrogatives in Haggai-Zechariah: A Literary Thread?", James W. Watts and Paul R. House (eds.), *Forming Prophetic Literature: Essays on Isaiah and the Twelve in Honor of John D. W. Watts* (JSOTSup 23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224-244.

서, 말라기서가 포로기 이후 회복과 관련된 메시지를 다루는데, 이것을 위해 어떠한 주제가 공통으로 사용되는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통된 주제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성전과 지도자/백성의 주제, 성전과 열방의 주제, 성전과 거룩의 주제를 찾았고, 이러한 3개의 주제가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의 회복 메시지를 구성함을 주장하고자 한다.⁸ 이것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본 논문은 학개서와 스가랴 1-8장을 성전 재건 이전의 문서로 보았고, 말라기서와 스가랴 9-14장을 성전 재건 이후의 문서로 보았다.⁹ 이렇게 함으로써 3개의 주제가 성전 재건 이전(학개서, 스가랴 1-8장)부터 성전 재건 이후(말라기서, 스가랴 9-14장)의 예언서들 사이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서로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
- 8 이윤경은 학자들이 스가랴 1-8장과 9-14장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주제로 ‘열방’, ‘목자’, ‘유다의 회복’을 강조한다고 보았다. 이윤경, 「제2성전 시대의 목시문학과 사상」(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9), 134-138.
- 9 스가랴 9-14장의 본문이 목시문학적 경향(예언서에서 목시적 종말론으로 넘어가는 단계)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스가랴 9-14장의 연대를 말라기서 이후로 보았다. 스가랴 9-14장의 연대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을 위해 Rex Mason, *The Books of Haggai, Zechariah and Malach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76-77; 폴 헨슨, 「목시문학의 기원」(이무용/김지은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262-382. 원제는 Paul Hanson, *The Dawn of Apocalyptic* (Philadelphia: Fortress, 1979); Ralph L. Smith, *Micah-Malachi* (WBC 32;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4), 242-249; 스티븐 L. 쿡, 「예언과 목시: 포로기 이후 목시 사상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이윤경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203-264. 원제는 Stephen L. Cook, *Prophecy & Apocalypticism: The Postexilic Social Setting*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ublisher, 1995); Michael R. Stead, *The Intertextuality of Zechariah 1-8* (New York: T & T Clark, 2009), 6-8; Steven S. Tuell, *Reading Nahum-Malachi*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Inc., 2016), 165-169 참조.

2.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의 메시지의 연관성

1) 성전 건축 이전: 학개서, 스가랴 1-8장

학개서와 스가랴 1-8장은 2가지 면에서 성전 건축 이전의 시기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¹⁰ 첫째는 연대 문구(dating formula)이다. 성전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완공되었는데, 학개서와 스가랴 1-8장은 ‘다리오 왕 제2년’(학 1:1, 15; 2:10; 스 1:1, 7)과 ‘다리오 왕 제4년’(스 7:1)을 배경으로 한다. 둘째는 성전 건축의 미완성에 대한 암시이다. 학개서는 ‘성전이 황폐하였다’(학 1:4),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학 1:8)와 같은 표현을 통해 성전 건축 이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함을 보여준다. 반면에 스가랴 1-8장은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스 1:16),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스 4:9), ‘씩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야웨의 전을 건축하리라’(스 6:12)와 같은 표현을 통해 성전 건축 이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개서와 스가랴 1-8장은 성전 건축 이전의 문서라고 볼 수 있다.

(1) 학개서

학개서의 구조는 성전 재건의 문제(학 1:1-2:19)와 보충 설명(학 2:20-23)으로 나눌 수 있다. 성전 재건의 문제는 학개서의 핵심 메시지로 강조되는데, 특이하게도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학개서는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지도자/백성의 주제, 열방의 주제, 거룩의 주제를 연대 문구(dating formula)를 기초로 하여 순차적으로 기술한다. 귀환

10 자세한 논의를 위해 Carol L. Meyers and Eric M. Meyers, *Haggai, Zechariah 1-8* (AB 25B;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88), xlv-xlviii 참조.

공동체의 회복의 과정이 3개의 주제를 통해 순차적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성전과 지도자/백성, 성전과 열방, 성전과 거룩의 주제가 전체 메시지를 이끌어가는 핵심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앞부분(학 1:1-2:19)에서 강조된 3개의 주제 중에 부족한 내용이 뒷부분(학 2:20-23)에서 보강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3개의 주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연대 문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3 단계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1단계는 성전과 지도자/백성에 관한 주제를 통해 회복의 과정을 묘사한다(학 1:1-2:5). 이것은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 6월 24일, 7월 21일에 주어진 말씀인데, 회복의 과정에서 발생한 성전 재건의 문제가 철저하게 지도자/백성과 관련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특별히 2가지가 언급된다. 하나는 지도자/백성의 무관심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다리오 왕 제2년(주전 520년) 6월 1일’(학 1:1)과 관련된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웨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학 1:2b). ‘내 집은 황폐하였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학 1:9bβ).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학 1:4). 이러한 표현들은 당시 지도자/백성이 성전 재건에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 고레스의 칙령으로 주전 538년경에 세스바살의 인도하에 귀환한 자들이며(스 1장), 또한 주전 522년경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귀환한 자들이다(스 2장).¹¹ 그런데 이들은 ‘그 땅 백성들’의 방해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중단해야만 했다(스 4:4-5, 24 참조).¹² 학개서는 이러한 중

11 소형근, “고대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 ‘골라’ 공동체와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95집 (2025년 3월), 65-66 참조.

12 에스라 4장은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대 백성

단으로 인해 지도자와 백성이 귀환의 목적을 망각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은 성전 재건에 무관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회복의 과정에서 발생한 성전 재건의 문제를 철저히 지도자/백성의 주제를 통해 묘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도자/백성의 열정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다리오 왕 제2년(주전 520년) 6월 24일과 7월 21일’과 관련된다. 성전 건축 중단을 당연시하며 성전 재건에 무관심한 지도자/백성에게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2가지의 표현을 통해 강조된다. 첫째는 ‘야웨께서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표현이다. 성전 재건에 무관심한 지도자와 백성의 마음을 야웨께서 감동시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야웨께서 … 스룹바벨의 마음과 …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야웨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더라’(학 2:14). 야웨께서 정치적 지도자(유다 총독 스룹바벨)와 종교적 지도자(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정결한 백성(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성전 공사가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¹³ ‘마음의 감동’이 성전 재건을 개시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는 ‘이제 군세게 할지이다 …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표현이다. 여기에서는 ‘야웨의 함께 하심’이 강조되는데, 이것은 성전 재건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도록 하겠다는 야웨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의지는 다리오 왕 제2년 7월 21일에 지도자와 백성에게 선포되었다. ‘야웨가 이르노라 스룹바

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4-5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24절).

13 주전 539년 야웨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도록 하였다(스 1:1-4 참조).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라”(스 1:1-3).

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학 2:4). 지도자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야웨께서 이제는 그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속하도록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성전 재건이 지도자와 백성과 관련된 주제를 통해 묘사되는 것이다.

2단계는 성전과 열방에 관한 주제를 통해 회복의 과정을 묘사한다(학 2:6-9). 이것은 다리오 왕 제2년 7월 21일에 주어진 말씀인데,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열방의 역할을 강조한다. 특별히 열방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만군의 야웨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학 2:6-7). 여기에서 2가지 강조된다. 하나는 야웨의 주권적 관여이다. 야웨께서 열방을 자극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에 협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¹⁴ 특별히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학 2:6b)라는 표현과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학 2:7a)라는 표현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1인칭 히필 동사 '내가 진동키다'(הֲרַעֲפֹתִי אֲנִי מְרַעֵשׁ)라는 2번의 표현을 사용해 야웨의 적극적인 관여를 강조하는 것이다.¹⁵ 다른 하나는 열방의 적극적인 동참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라.' 야웨의 주권적 관여로 모든 나라가 야웨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다. 어느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아온다는 것이다. 특별히 '하

14 Carroll Stuhlmueller, *Haggai & Zechariah*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8), 30.

15 메이어스(Meyers)는 열방에 대한 야웨의 '진동'의 긍정적인 결과로 열방이 예물을 가져 오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Carol L. Meyers and Eric M. Meyers, *윇글*, 53.

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라는 표현과 '모든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해 특정한 나라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야웨의 성전 재건을 도우며 그들의 보배를 야웨께 드림을 강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전이 야웨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학 2:7bα). 이렇게 볼 때 성전과 열방의 주제는 지도자와 백성의 성전 재건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1단계로 귀환 공동체를 통해 시작된 성전 재건이 2단계로 열방을 통해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들이 보충된다는 것이다.

3단계는 성전과 거룩/정결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 회복의 과정을 묘사한다(학 2:10-19). 이것은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에 주어진 말씀인데, 온전한 회복을 위해 정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단계로 지도자들/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강조했고, 2단계로 열방의 동참을 강조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성전 재건을 통한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공동체에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2년 6월 24일, 학 1:14-15), 당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 '야웨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학 2:14). 그리하여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2개의 예를 든다. 하나는 거룩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룩한 고기를 찢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떡, 국, 포도주, 기름)에 닿을지라도 음식물이 성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학 2:12). 한마디로 거룩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저절로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부정은 쉽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다른 물건을 만지면 곧바로 부정해진다는 것이다(학 2:13). 거룩한 성전을 재건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부

정함으로 인해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공동체가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을 제거하지 않으면 성전과 공동체에 부정히 전이되어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야웨께 진정으로 돌아와야 하며(학 2:17), 그들이 돌아온다면 야웨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다(학 2:19). 이처럼 학개서는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지도자/백성의 문제, 열방의 역할, 거룩의 필요성을 연대 문구를 사용하여 3단계로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러한 3단계의 전개 이후에 부족한 것이 보충 설명(학 2:20-23)을 통해 보강된다. 여기서는 2가지가 강조되는데, 하나는 야웨의 주권에 대한 보충이다.¹⁶ 이것을 위해 야웨에게 열방을 심판할 능력이 있음이 강조된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할 것이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엮을 것이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 포로로 끌려가고, 이후에 강대국 페르시아를 통해 고국으로 귀환한 자들에게 열방을 심판할 능력이 야웨에게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회복 프로그램이 온전히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회복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 스룹바벨에 대한 보충이다. 특별히 야웨와의 관계를 통한 그의 지위가 부각된다. ‘내 종 스룹바벨아’,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학 2:23). 회복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로 스룹바벨이 적격자라는 것이다. 스룹바벨의 지도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개서는 3단계로 묘사된 회복 프로그램이 야웨의 주권을 통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온전히 완성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학개서에 강조된 3개의 주제가 스가랴 1-8장에 보

16 Marvin A. Sweeney, *The Twelve Prophets* Vol. 2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553 참조.

충되고 있다. 이제 스가랴 1-8장을 살펴보자.

(2) 스가랴 1-8장

스가랴 1-8장의 구조는 8개의 환상(스 1-6장)과 보충 설명(스 7-8 장)으로 나눌 수 있다.¹⁷ 8개의 환상은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주어졌고, 보충 설명은 다리오 왕 제4년 9월 4일에 주어졌다. 따라서 스가랴 1-8 장은 성전 건축(다리오 왕 제6년 완공) 이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¹⁸ 그런데 특이하게도 학개서처럼 스가랴 1-6장에 언급된 8개의 환상은 성전과 관련된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성전과 지도자, 성전과 열방, 성전과 거룩의 주제가 메시지 구성의 소재로 사용된다. 따라서 스가랴 1-6장은 학개서가 다루었던 3개의 주제를 이어받아 환상이라는 양식을 통해 메시지(회복의 내용)를 더 포괄적으로 보강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가랴 7-8장의 보충 설명은 환상을 통해 충분히 묘사되지 못한 주제를 2개의 설교 형식을 통해 보강한다. 이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성전과 지도자에 관한 주제는 네 번째 환상(스 3:1-10), 다섯 번째 환상(스 4:1-14), 환상을 마무리하는 단락(스 6:9-15)에 나타난다. 학개서에서 성전과 관련하여 지도자(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역할이 구분 없이 강조되었다면, 스가랴 1-8장은 성전과 관련하여 지도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강조한다. 학개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지도자의 역할이 여기에서 보강되는 것이다. 특별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들은 ‘등잔대 곁의 두 감람나무’(스

17 Joyce G. Baldwin, *Haggai, Zechariah, Malachi*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72), 74.

18 성전 완공의 시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 김영호,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성전과 성벽 완공’에 대한 상호관계 고찰”, 『구약논단』 91집 (2024년 3월), 55-57 참조.

4:3),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속 4:11-12), ‘기름부음 받은 자 둘’과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속 4:14)로 묘사된다. 먼저 스투바벨에 대해 살펴보면 2가지가 강조된다. 하나는 스투바벨이 성전 재건의 완성자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섯 번째 환상(속 4:1-14)에서 자세하게 언급된다. ‘스투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9a절). 바벨론에서 귀환한 스투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이제 그 일을 마친다는 것이다. ‘그 땅의 백성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는데, 그것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스투바벨에 의해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6-7절은 이것이 야웨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6bz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투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7a절). 여기에서 ‘힘’과 ‘능력’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중건할 때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가리킨다.¹⁹ 이것으로는 중단된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야웨께서 스투바벨에게 야웨의 영을 부여주심으로써 큰 산과 같은 방해물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다. 스투바벨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마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학개서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지도자에 대한 보충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스투바벨이 귀환 공동체의 정치적 지도자라는 것이다. 이것은 환상을 마무리하는 단락(속 6:9-15)에 나타난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야웨의 전을 건축 하리라. 그가 야웨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스 6:12b-13a). 여기에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다윗의 후손 스투바벨을 의미한다.²⁰ 히브리어 **צמח**(째마흐/싹)가 주로 메시아적

19 장세훈, 「스가랴」(서울: SFC출판부, 2017), 183.

20 Marvin A. Sweeney, *윇글*, 631.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이다.²¹ 이렇게 볼 때, 스룹바벨은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그가 야웨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가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라’(13a절)와 같은 점층적 표현은 스룹바벨이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적합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귀환 공동체의 기초를 놓은 스룹바벨이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로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여호수아를 살펴보자.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로 강조된다. 이것은 네 번째 환상에 잘 드러난다(스 3:1-10).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또한 네가 내 딸을 지킬 것이며,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사람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7a_β-b절). 종교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야웨의 성전을 다스리고, 성전 딸을 지키고, 제사장들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 야웨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받는다는 것이다.²² 종교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을 위해 여호수아는 야웨의 말씀을 지켜야 했다. 야웨는 그에게 2개의 명령을 주신다. ‘내 길로 행하라’와 ‘내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이다’(7a_α절). 이것은 여호수아가 야웨의 언약에 충실해야 함을 의미한다.²³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귀환 공동체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스룹바벨과는 다른 기준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학개서에서 볼 수 없는 여호수아에 대한 보강이다.

둘째로 성전과 열방에 관한 주제는 첫 번째 환상(스 1:7-17), 두 번째 환상(스 1:18-21), 세 번째 환상(스 2:1-13)에 집중적으로 언급된다.

21 장세훈, 윗글, 265.

22 윗글, 159.

23 Mark J. Boda,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Haggai, Zechariah* (Grand Rapids: Zondervan, 2004), 254.

학개서가 간략하게 열방의 심판/자극(‘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과 열방의 야웨에 대한 헌신(‘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을 다루었다면, 스가랴 1-8장은 환상(스 1-6장)과 보충 설명(스 7-8장)을 통해 학개서에서 다루지 않은 메시지를 보강한다. 특별히 2가지가 강조되는데, 하나는 안일한 열방의 심판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 환상에 언급된다(스 1:7-17). ‘내가 안일한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니 …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15-16절). 여기에서 ‘안일한 나라들’은 야웨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라고 명령한 강대국들이다. 야웨의 도구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힘과 권세를 앞세워 예루살렘을 짓밟는 포학을 저질렀다. 도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는 악행을 저지른 것이다.²⁴ 그리하여 야웨는 이들을 심판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 그곳에 돌아올 것이며, 성전이 그 안에 건축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열방의 심판과 성전의 재건이 연결되고 있다. 두 번째 환상은 안일한 열방의 죄악을 명확하게 밝힌다(스 1:18-21(MT 스 2:1-4)).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흠뜨린 4개의 뿔’(18-19절)로 불린다.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간 사방의 열방들이라고 볼 수 있다.²⁵ 야웨는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별히 이 환상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를 언급함으로써 야웨께서 동서남북의 모든 열방을 온전히 심판할 것임을 강조한다. 온전한 심판을 통한 온전한 회복을 암시하는 것이다. 세 번째 환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스 2:1-13(MT 스 2:5-17)), 특별히 많은 나라가 야웨께 속하여 야웨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열방까지도 야웨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3개의 표

24 David L. Petersen, *Haggai and Zechariah 1-8*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4), 154.

25 Carol L. Meyers and Eric M. Meyers, *룻*, 137; Carroll Stuhlmueller, *룻*, 67-68.

현을 통해 강조된다(11aa-bα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야웨께 속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앞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열방이 이제는 회개하고 야웨께 나아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²⁶ 이것은 학개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스가랴서의 보충이다. 이러한 열방에 대한 언급 외에 또 다른 열방의 모습이 뒤의 환상을 마무리하는 단락(스 6:9-15)과 보충 설명(스 7-8장)에 묘사된다. ‘먼데 사람이 와서 야웨의 전을 건축하리라’(스 6:15aa).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야웨를 찾고, 야웨의 은혜를 구하리라’(스 8:22). ‘먼데 사람’,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은 열방을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파괴했던 자들이다. 그런데 야웨의 심판 이후에 이들이 변화를 받아 야웨께 나아와 성전 재건에 협력하고 야웨를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개서에서는 단순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성전에 이를 것이라’(스 2:7aβ)고 말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열방이 야웨의 성전 재건에 힘쓰고, 심지어 야웨를 찾고 은혜를 구하기까지 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됨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스가랴 1-8장은 학개서에 언급된 성전과 열방의 주제를 보강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성전과 거룩에 관한 주제는 네 번째 환상(스 3:1-10), 여섯 번째 환상(스 5:1-4), 일곱 번째 환상(스 5:5-11)에 나타난다. 스가랴 1-8장도 학개서처럼 성전과 거룩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 성전 재건을 앞둔 귀환 공동체에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정결하지 못한 것을 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도자도 거룩해야 하고 백성들도 거룩해

26 Carol L. Meyers and Eric M. Meyers, *윳글*, 169.

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네 번째 환상(속 3:1-10)은 지도자의 거룩을 다룬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야웨께서 그의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3-4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당시 귀환 공동체가 부정한 상태임을 의미한다.²⁷ 종교적 지도자 대제사장을 비유로 들어 공동체의 타락을 강조하는 것이다.²⁸ 성전 재건을 앞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로 성전 재건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거룩한 성전 재건을 위해서는 백성들의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야웨는 이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의 죄악을 제거하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라고 말한다. 히필 명령형 동사 ‘벗기라’(הִסְרִי), 히필 1인칭 동사 ‘내가 제거하였다’(הִעֲבַרְתִּי), 히필 부정사 ‘입히리라’(הִלְבַּשׁ)를 사용해²⁹ 귀환 공동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변화시키겠다는 야웨의 의지를 보여준다.³⁰ 학개서가 단지 거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면, 스가랴 1-8장은 야웨의 주도적인 개입으로 공동체가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환상과 일곱 번째 환상은 이들의 죄악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여섯 번째 환상(속 5:1-4)은

27 차준희/유윤중, 「학개/스가랴/말라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99.

28 다른 의견을 위해 Elizabeth Achtemeier, *Nabum-Malachi* (Atlanta: John Knox Press, 1986), 121 참조.

29 부정사 절대형이 종종 정동사 역할을 한다. 김근주,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스바냐·학개·스가랴·말라기」(서울: 성서유니온, 2018), 365-366 참조.

30 앤드류 E. 힐, 「학개·스가랴·말라기」(유창걸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204. 원제는 Andrew E. Hill, *Haggai, Zechariah and Malachi* (Nottingham: Inter-Varsity Press, 2012).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 이들의 죄악이 ‘도둑질과 거짓 맹세’라고 말한다. 당시 귀환 공동체에 만연된 죄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죄악의 심각성은 길이가 20규빗(9m), 너비가 10규빗(4.5m)이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말씀에 기초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에서 강조된다(2절).³¹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3절). 특별히 4절은 아웨께서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집에까지 들어가 심판한다는 것은 온전한 심판을 의미한다. 철저하게 심판하여 귀환 공동체를 정화하겠다는 아웨의 의지인 것이다. 일곱 번째 환상(속 5:5-11)은 에바 환상을 통해 이들의 죄악이 ‘부정직한 행위’임을 강조한다. 물건을 매매할 때 사용하는 저울과 같은 에바를 당시 백성들이 부정하게 사용하여 공동체를 혼란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의 제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이 환상은 악을 상징하는 여인을 에바에 던져 넣고, 납 조각으로 입구를 막고,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2명의 여인이 그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겨갔다고 말한다. ‘시날 땅’은 귀환 공동체가 70여 년 동안 살며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이다. 아마도 귀환 이후에도 그들은 우상숭배를 온전히 끊지 못하였던 것 같다.³² 성전을 재건하고 새롭게 공동체를 구성하는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정을 비롯한 우상숭배를 끊어야 했다. 따라서 에바 환상을 통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죄악은 보충 설명(속 7-8장)을 통해 한 번 더 강조된다. 귀환 공동체가 행한 죄악을 중단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설교 형식을 통

31 길이가 20규빗, 넓이가 10규빗의 크기는 (1) 성소 앞 낭실의 크기와 같고(왕상 6:3), (2) 성막의 성소와 같은 크기이며(출 26장), (3) 지성소 내의 그룹의 크기와 같다(왕상 6:23-28). 차준희/유윤중, 윗글, 224-225 참조.

32 Ralph L. Smith, 윗글, 211.

한 야웨의 명령 형태로 강조된다. 2개의 긍정 명령과 2개의 부정 명령이 선포된다(슥 8:16b-17).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אִתְּךָ)’,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행하라(אֲשֶׁר)’, ‘너희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אֲלֵךְ)’,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אֲלֵךְ)’. 보충 설명을 통해 앞에서 언급하지 못한 것을 보강하는 것이다. 이처럼 스가랴 1-8장은 귀환 공동체의 모든 죄악을 지적하며, 온전한 정화가 있어야 함을 환상과 설교를 통해 강조하는 것이다.

2) 성전 건축 이후: 말라기서, 스가랴 9-14장

말라기서와 스가랴 9-14장은 성전 건축 이후의 메시지를 다룬다.³³ 말라기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 그것이 성전 건축 이후의 시기에 기록되었음을 보여준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말 1:7aα).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아 나의 제단에 헛되게 불사르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말 1:10a). ‘너희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야웨의 단을 가린다’(말 2:13a). ‘주가 그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리라’(말 3:1bα).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말 3:10aα). 이러한 표현들은 이미 성전이 존재함을 말하고 있다. 스가랴 9-14장도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 이 단락이 성전 건축 이후의 시기에 기록되었음을 보여준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 이라’(슥 9:8aα). ‘시온아 내가 너의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를 치게 하리라’(슥 9:13aβ-γ). ‘내가 은 삼십을 취하여 그것을 야웨의 전에서 토기장 이에게 던졌다’(슥 11:13b). ‘내 집’, ‘야웨의 전’, ‘헬라’와 같은 표현을 통해 성전 건축 이후의 시기를 암시한다. 따라서 말라기서와 스가랴 9-14

33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위해 David L. Petersen, *Zechariah 9-14 and Malachi*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3-6 참조.

장은 성전 건축/재건 이후의 문서라고 볼 수 있다.

(1) 말라기서

말라기서의 구조는 6개의 논쟁(말 1:1-3:18)과 보충 설명(말 4:1-6(MT 3:19-24))으로 나눌 수 있다.³⁴ 6개의 논쟁을 통해 귀환 공동체가 회복의 과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보충 설명을 통해 귀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강조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6개의 논쟁은 성전과 지도자/백성의 주제, 성전과 열방의 주제, 성전과 거룩의 주제를 다룬다. 학개서와 스가랴 1-8장에서 강조된 동일한 주제가 말라기서에서도 계속되는 것이다. 3개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성전과 지도자/백성의 주제는 다섯 번째 논쟁(말 3:7-12)과 여섯 번째 논쟁(말 3:13-18)에 나타난다. 학개서와 스가랴 1-8장에서 강조된 성전과 지도자/백성의 주제가 말라기서에서도 강조된다. 그런데 이미 학개서와 스가랴 1-8장에서 언급했던 성전이 재건되었기에 말라기서는 성전 재건 이후에 발생한 지도자/백성의 문제를 다룬다. 이런 점에서 말라기서는 이전 선지자들의 관심을 보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말라기서는 성전과 지도자/백성의 주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다루는가? 다섯 번째 논쟁(말 3:7-12)은 야웨의 규례와 관련하여 지도자/백성의 불순종을 다룬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십일조와 봉헌물을 이들이 드리지 아니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영적으로 둔하여 야웨의 명령에 다음과 같이 반항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7b절). 성전이 재건된 이후 지도자와 백성들의 타락상을 볼 수 있다. 성전 공동체 일원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의

34 R. W. Pierce, *윗글*, 409. 구조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을 위해 Andrew E. Hill, *Malachi* (New York: Doubleday, 1998), 26-34 참조.

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죄악을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다. 성전과 지도자/백성의 주제를 통해 이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이들이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여섯 번째 논쟁(말 3:13-18)은 명확하게 설명한다. 특별히 4가지가 강조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14a절). ‘교만한 자가 복되다’(15a절).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15b α 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15b β 절). 이처럼 이 당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철저히 야웨를 불신하였다. 오히려 이들은 야웨를 섬기는 것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복되고, 번성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들에게 전통적인 신앙과 도덕 기준이 온전히 깨어진 것이다.³⁵ 이처럼 말라기서는 당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여주는데, 학개서와 스가랴 1-8장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을 보여준다.

둘째로 성전과 열방의 주제는 첫 번째 논쟁(말 1:2-5)과 두 번째 논쟁(말 1:6-14)에 뒤섞여 나타난다. 성전 재건 이후 야웨에 대한 공동체의 오해와 문제를 열방의 주제를 사용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첫 번째 논쟁(말 1:2-5)은 야웨의 사랑에 대한 백성들의 오해를 열방과 관련하여 다룬다. 귀환 이후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공동체는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놓여 온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백성들은 야웨의 사랑을 의심하였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2a β 절). 이러한 오해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말라기서는 귀환 공동체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었던 형제국인 에돔을 예로 들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에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방관하고 오히려 기뻐했으며, 심지어 재물을 약탈하고 도망하

35 Graham S. Ogden & Richard R. Deusch, *Joel & Malachi*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7), 108.

는 자들을 원수에 넘기기까지 하였다(참조 욥 1:10-14; 겔 35:5-12). 그리하여 포로기 이후 귀환 공동체에게 최고의 스트레스는 에돔이었고, 이것이 야웨의 사랑의 증거를 위한 답변으로 제시된 것이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내가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2b β -3절). 열방의 주제가 말라기서의 상황에 적용되어 메시지 구성의 소재로 사용된 것이다. 두 번째 논쟁(말 1:6-14)은 제사장들의 문제를 열방과 관련하여 다룬다. 당시 제사장들은 야웨를 멸시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니까’(6b β 절)라며 변명하였다. 성전에서 더러운 떡을 제단에 바치고, 흠이 있는 희생제물(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친 것)을 제단에 바치면서도 그들은 야웨를 멸시하지 아니했다고 변명하였다. 그리하여 말라기서는 열방의 주제를 사용하여 이들의 변명에 답변하였다. 야웨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변명에 답하기 위해 열방의 주제가 사용된 것이다. 특별히 열방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의 죄악을 부각하였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11절). 제사장들은 타락하여 더러운 재물을 드리고 야웨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오히려 열방은 깨끗한 재물을 드리고 야웨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다. 열방의 주제를 사용하여 성전 제사장들의 타락을 조롱하는 것이다.³⁶ 이렇게 볼 때, 성전과 열방의 주제는 학개서와 스가랴 1-8장을 넘어 말라기서에서도 메시지 구성을 위한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것이다.

셋째로 성전과 거룩의 주제는 세 번째 논쟁(말 2:10-16)과 네 번째 논쟁(말 2:17-3:6)에 나타난다. 말라기서는 성전 재건 이후 귀환 공동체

36 차준희/유운중, 윗글, 445.

에서 발생한 거룩의 문제를 다룬다. 성전 재건 이전(학개서, 스가랴 1-8장)에는 성전의 건축과 관련하여 거룩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성전 재건 이후에는 성전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거룩의 필요성을 다루는 것이다. 거룩의 중요성이 시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면 말라기서에서 어떠한 거룩의 문제가 발생했는가? 세 번째 논쟁(말 2:10-16)은 혼합결혼으로 인해 발생한 공동체의 거룩의 문제를 다룬다. 특별히 2가지가 강조된다. 하나는 혼합결혼의 문제이다. ‘유다가 야웨께서 사랑하시는 거룩을 더럽히고, 그가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11b절). 성전 재건 이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야웨께서 사랑하는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 되었다.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야웨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혼합결혼의 문제는 거룩을 더럽히는 제1의 근원이 되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야웨께서 사랑한 거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말라기 당시 거룩의 훼손이 심각했음을 방증한다. 다른 하나는 이혼의 문제이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심령을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15aβ-16aα절). 당시 백성들은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곤 하였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대인과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룩하지 못한 자손’이 출산하게 된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손들이 태어난 것이다. 그리하여 야웨는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그녀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라고 부르며(14절), 그들을 통해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말라기서는 당시 공동체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거룩의 주제를 사용한다. 네 번째 논쟁(말 2:17-3:6)은 지도자들의 거룩에 초점을 맞춘다. 앞에서 지도자들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말 1:6bα). ‘야웨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

린 자들’(말 1:7 $\alpha\alpha$),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제물을 야웨께 드린 자들’(말 1:14 $\alpha\beta$),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자들’(말 2:8 $\alpha\beta$), ‘레위의 율법을 파기한 자들’(말 2:8 $\beta\alpha$)로 묘사된다. 다양한 표현을 통해 당시 지도자들의 타락이 심각했음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야웨는 네 번째 논쟁(말 2:17-3:6)에서 거룩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것은 성전에 임하는 야웨의 모습을 통해 강조된다. 성전에 임하는 야웨를 정결과 관련지음으로 거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2 β 절). 여기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는 도구인 것이다. 한마디로 야웨께서 이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야웨는 특별히 레위 자손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가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야웨께 드릴 것이라’(3 $\alpha\beta$ - β 절). 야웨께서 그들을 정화함으로써 더 이상 그들이 더러운 떡이나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않고, 앞으로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화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도 야웨께 기쁨이 되는 헌물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다(4절). 지도자가 변함으로 백성들도 변한 것이다. 이러한 정화의 문제는 말라기서의 보충 설명(말 4:1-6)에서 한 번 더 강조된다. 여기에서는 우주적 정화를 묘사한다. ‘그날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1 α - $\beta\alpha$ 절). 공동체의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을 용광로 불로 태워 정화하고 귀환 공동체가 바로 서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말라기서도 학개서와 스가라 1-8장에서 다루었던 성전과 거룩의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룬다.

(2) 스가랴 9-14장³⁷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개서의 구조는 성전 재건(학 1:1-2:19)과 보충 설명(학 2:20-23), 스가랴 1-8장의 구조는 8개의 환상(스 1-6장)과 보충 설명(스 7-8장), 말라기서의 구조는 6개의 논쟁(말 1-3장)과 보충 설명(말 4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스가랴 9-14장의 구조도 이런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메시지(스 9-13장)와 ‘야웨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보충의 메시지(스 14장)로 나눌 수 있다.³⁸ 실제로 스가랴 9-13장은 ‘그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전과 지도자/백성의 주제, 성전과 열방의 주제, 성전과 거룩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스가랴 14장은 ‘야웨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면서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보강하는 느낌을 준다. 이런 점에서 스가랴 9-14장도 2개의 단락(스 9-13장, 스 14장)으로 나눌 수 있다. 3개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성전과 지도자/백성의 주제는 스가랴 10장과 11장에서 다른 주제와 뒤섞여 나타난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백성보다 지도자의 문제를 지적한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곤고를 당하느니라’(스 10:2bβ).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스 10:3a).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니라’(스 11:5b). ‘너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아라’(스 11:15b). ‘화 있을

37 스가랴 9-14장에 대한 다양한 연대 추정을 위해 폴 헨슨, 윌글, 269-273 참조. 볼드윈(J. Baldwin)은 스가랴 9-14장이 많은 묵시적 상징을 지닌다고 보면서, 특별히 묵시문학적 요소로 ‘지진 주제’(스 14:4-6), ‘주님의 기적적 개입’(스 9:14; 12:3, 4), ‘종말론적 전투’(스 12:1-9; 14:1-5), ‘예루살렘의 신적 구원’(스 9:8; 12:7; 14:1-8), ‘쓰러린 탄식’(스 12:10-14), ‘궁극적인 기쁨’(스 9:9; 14:16) 등이 있다고 보았다. Joyce G. Baldwin, 윌글, 70-74.

38 ‘그날’이라는 표현은 스가랴 9-13장에 8번(스 9:16; 12:3, 4, 6, 8, 11; 13:1, 4) 나타나고, ‘야웨의 날’이라는 표현은 스가랴 9-13장에서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스가랴 14장 1절에서만 한번 볼 수 있다.

진저 양 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눅 11:17^{aa}). 이처럼 스가랴 10장과 11장은 성전 재건 이후 회복의 과정에서 지도자들의 문제가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말라기서도 지도자의 문제를 강조했는데, 여기에서도 지도자의 문제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이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가랴 10장에서 성전과 지도자/백성의 주제는 야웨의 은혜에 초점을 맞춘다. 지도자의 부재로 백성이 고난을 겪었지만, 야웨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은혜를 베풀어 공동체를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3단계로 전개된다. 1단계는 지도자의 문제를 강조한다(1-3a절).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느니라’(2bβ절). 여기에서는 ‘목자가 없으므로’라는 표현을 통해 성전 재건 이후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한다.³⁹ 목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백성들이 비를 내리는 야웨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드라빔과 복술자를 의지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야웨는 목자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다. 목자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숫염소를 벌하리라’(3a절). 2단계는 지도자의 회복을 강조한다(3b-5절). 지도자들의 문제로 백성들이 유리하고 곤고를 당하였는데,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야웨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이다. 과거의 지도자와는 다른 온전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군의 야웨가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잇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오리라’(3b-4절). 여기에서 ‘모퉁잇돌’은 백성을 연결해 주는 지도자, ‘말뚝’은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지도자, ‘싸우는 활’은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 ‘권세 잡은 자’는 공동체를 관리하

39 이윤경은 “제2스가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왕권을 은유하는 ‘목자’라는 이미지를 차용하여 당시의 지도자들을 비판한다”라고 보았다. 이윤경, *빛글*, 135.

는 지도자를 의미한다.⁴⁰ 과거 무능한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온전한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야웨의 약속인 것이다. 3단계는 야웨의 은혜를 강조한다(6-12절). 지도자의 부재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도자를 온전히 회복시킨 야웨께서 이제 백성들도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회복에 관한 약속이 다음과 같이 열거된다. 귀환(6절, 9-10절), 기쁨(7절), 번성(8절), 명예 회복(11절), 야웨 의지(12절). 이처럼 스가랴 10장은 지도자의 부재, 지도자의 회복, 백성들의 회복과 같은 점층적 메시지를 통해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임하는 야웨의 은혜를 강조한다.

스가랴 11장도 성전과 지도자의 주제를 다루는데, 특별히 지도자의 문제를 통해⁴¹ 야웨의 심판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귀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스 10장)께서 어찌하여 과거에 백성들을 심판하고, 왕국을 분열시키고, 다윗 가문의 왕을 멸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지도자의 문제를 통해 답변하는 것이다.⁴² 이것은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을 통해 묘사된다.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단계는 북 왕국과 남 왕국이 멸망한 이유를 다루는데, 이것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라’는 명령에 대한 상징적 행동으로 시작된다(4-6절). 양 떼를 먹이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 과거 목자 역할을 했던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5b절)라는 표현은 죄악의 근원이 지도자에게 있음을 부각한다. 과

40 김근주, 윗글, 633-634. 쿡(Stephen L. Cook)은 ‘모퉁잇돌’, ‘말뚝’, ‘싸우는 활’을 3종의 메시아 호칭이라고 본다. 스티븐 L. 쿡, 윗글, 224.

41 헨슨(Paul Hanson)은 스가랴 11장의 상황이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내부에서 환상가들과 제사장 통치 집단 사이에 존재했던 투쟁과 관련된다”라고 보았다. 폴 헨슨, 윗글, 322.

42 왕대일은 목시문학적 종말론이 사용하는 중요한 문체로 ‘사후예고식 서술’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나간 과거 동안 겪었던 중요 사건들을 장차 일어날 사건인 양 예고하는 형식으로 기술함으로써, 목시문학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종말에 관한 계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는 신빙성”을 더한다고 보았다. 왕대일, 「목시문학과 종말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35.

거에 이들이 양 때를 붙잡히 여기지 않은 결과 악한 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양 때를 죽이기도 하고 사고팔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죄악이 철저하게 악한 지도자들에게서 기인했고, 그리하여 야웨는 그들을 이웃 나라에 넘겼다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라’(6b&c절). 북 왕국과 남 왕국의 멸망이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다. 야웨의 심판의 정당성을 지도자의 죄악에서 찾는 것이다. 2단계는 언약 파기와 왕국 분열의 이유를 다루는데, 이것은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 강조된다(7-14절). 여기에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는 행위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깨하는 것’을 의미하고(10절),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는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는 것’을 의미한다(14절)고 말한다. 과거 야웨께서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었는데, 이러한 상징적 행동을 통해 과거에 야웨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8a절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한 달 동안에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노라.’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악한 지도자들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⁴³ 이러한 이유로 야웨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심판의 정당성을 지도자들의 죄악에서 찾고 있다. 3단계는 다윗 가문의 왕들이 심판받은 이유를 다루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으라는 상징적 행동’과 관련된 명령으로 시작된다(15-17절). 여기에서 ‘어리석은 목자’는 야웨께서 세운 다윗 가문의 왕들을 상징하고,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 그러면 야웨께서 이들을 심판한 이유가 무엇인가? 17a절은

43 이윤경, 윗글, 129.

그들이 ‘양 떼를 버린 못된 목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5가지로 열거된다(16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흠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였다’,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였다’,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굵을 찢었다.’ 과거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고,⁴⁴ 그리하여 야웨께서 이들을 심판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야웨의 심판의 정당성을 지도자들의 죄악에서 찾고 있다. 이처럼 스가랴 11장은 과거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 과거 남과 북이 나뉜 이유, 과거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철저하게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임을 강조함으로써 야웨의 심판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스가랴 11장은 스가랴 10장에서 강조한 은혜의 약속이 지속되기 위해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성전과 열방의 주제는 스가랴 9장과 12장에 다른 주제와 뒤섞여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열방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별히 3단계의 전개를 볼 수 있다. 1단계는 스가랴 9장 1-8절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열방의 도시들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 야웨는 열방의 심판을 통해 그들이 더는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하지 못하게 할 것임을 강조한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박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이제 나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라’(8절). 야웨의 관심이 철저하게 적군/포박한 자가 성전을 파괴하고 약탈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한다. 특별히 ‘내가 내 집을 위해 진을 치다’(לְבֵיתִי לְבִיתִי 8a절)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רְאִיתִי בְעֵינַי 8b절)와 같은 1인칭 표현은 성전 보호에 대한 야웨의 관심을 잘 드러낸다. 주전

44 폴 헨슨, *윗글*, 329.

515년(다리오 왕 6년)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다시는 이 성전이 열방에 의해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열방은 ‘적군’과 ‘포악한 자’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로 묘사되는데, 1-7절은 9개의 열방의 도시들을 나열한다.⁴⁵ 하드락(시리아 북쪽의 도시국가), 다메섹(아람 나라 수도), 하맛(다메섹 근처 요새 도시), 두로와 시돈(페니키아의 항구도시),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블레셋의 4개의 도시). 이러한 도시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위치하여 성전의 약탈과 파괴에 언제든지 관여할 수 있는 도시들이었다. 예방 차원에서 야웨는 이들을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2단계는 스가랴 9장 11-17절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과 거리가 있는 ‘헬라’(חֶלְלָא)에 초점을 맞춘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를 치게 하며, 내가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13절). 일반적으로 ‘헬라’는 성전 재건(주전 515년) 이후 대략 200년 지나 등장한 나라로 볼 수 있다.⁴⁶ 이렇게 본다면 9개의 열방의 도시로부터 성전을 보호하겠다는 야웨의 의지가 헬라의 심판을 통해 한 번 더 강조되는 것이다. 성전 재건 이전에 등장한 열방의 심판을 통해 성전을 보호하겠다는 야웨의 의지가 성전 재건 이후에 등장한 헬라의 심판을 통해 한 번 더 드러나는 것이다.⁴⁷ 여기에서도 ‘내가 당겼다’(דָּרַכְתִּי), ‘내가 채웠다’(מִלֵּאתִי), ‘내가 일으켰다’(עִוְרַתִּי), ‘내가 너를 삼았다’(שָׁמַטִּי)와 같은 1인칭 표

45 헨슨은 이 지역이 ‘이상적 유대왕국의 경계’이며, 아마도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 대적들의 목록(암 1:3; 습 2:4-5; 렘 47:4 이하)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폴 헨슨, *윗글*, 299-301.

46 헬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위해 Carol L. Meyers and Eric M. Meyers, *Zechariah 9-14* (AB 25C;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93), 148-149; Mark J. Boda, *윗글*, 420-421 참조.

47 차준희/유윤중, *윗글*, 306.

현을 통해 유다와 에브라임을 도구로 삼아 열방을 심판하겠다는 야웨의 의지를 보여준다(13절). 과거에 열방을 통해 수없이 성전이 약탈당하고 파괴되었는데,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야웨의 의지인 것이다.

3단계는 스가랴 12장 1-9절에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민족’(כָּל־הָעַמִּים) 2절, 3절, 4절, 6절)의 심판에 초점을 맞춘다. 앞서처럼 이 단락도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이유로 예루살렘의 침략을 예로 든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열방(כָּל־הַגּוֹיִם)을 멸하기를 힘쓰리라’(9절). 야웨께서 예루살렘/성전을 침략하는 모든 열방을 철저히 멸하신다는 것이다. 특별히 1인칭 피엘 동사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אֶכְרַחֵם לְכָל־הַגּוֹיִם)’라는 표현은 야웨의 예루살렘/성전 보호에 대한 관심이 지극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내가 사면의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리라’(2a절)와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3a절)라는 1인칭 표현(אֶכְרַחֵם, אֶכְרַחֵם)을 통해서도 강조된다. 과거 예루살렘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열방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열방을 크게 상하게 하는 유능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야웨의 의지인 것이다.⁴⁸ 앞에서 9개의 ‘열방의 도시들’과 ‘헬라’의 심판을 통해 야웨께서 성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면, 여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열방’을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심판에 관한 3단계의 묘사는 스가랴 14장의 보충 설명에서 절정에 다다른다.⁴⁹ 왜냐하면 이들의 운명이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열방 중에 남겨진 모든 자들’로 묘사된다(16a절). 앞에서 언급된 열방의 생존자들이라

48 자세한 논의를 위해 윌글, 358-360 참조.

49 헨슨은 스가랴 14장이 “완전히 발전된 목시문학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았다. 폴 헨슨, 윌글, 347.

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들이 야웨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야웨께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16b절). 해마다 이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 초막절을 지키고 야웨를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다.⁵⁰ 귀환 공동체만이 지켜야 하는 절기를 열방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야웨께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다. ‘땅에 있는 족속 중에 그 왕 만군의 야웨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17절).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방을 야웨께서 치실 것이라’(18b절).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과 애굽에게 심판이 있으리라’(19절). 심판에 관한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열방의 운명이 야웨의 예배에 달려있음을 부각한다. 이처럼 스가랴 9-14장도 성전과 열방의 주제를 사용하여 성전 재건 이후 열방의 심판과 운명을 묘사한다. 학개서, 스가랴 1-8장, 말라기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셋째로 성전과 거룩의 주제는 스가랴 12장 10절-13장 9절에 나타난다. 학개서와 스가랴 1-8장과 말라기서에서 강조된 이 주제가 여기에서도 계속되는 것이다. 특별히 이 주제는 3개의 정화의 도구에 대한 묘사를 통해 3단계로 전개된다. 1단계는 영을 통한 공동체 내부의 정화를 강조한다(슥 12:10-14). 야웨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줌으로써 공동체가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전 재건 이후 회복의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체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야웨께서 영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

50 헨슨은 ‘초막절’이 3개 순례의 절기 중에 가장 으뜸인 절기이며, 이 기간 백성들이 ‘우주의 왕으로서 야웨의 즉위’를 송축하였다고 보았다. 윗글, 363.

한 회개가가 나타났는가? 10절은 ‘그들이 찌른 나(야웨)를 바라보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였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야웨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야웨를 찾고 그에게 나아와 회개하며 애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⁵¹ 한마디로 야웨께 돌아왔다는 것이다. 12-14절은 ‘그 땅의 온 족속’, ‘다윗의 족속’(왕), ‘나단의 족속’(선지자), ‘레위의 족속’(제사장), ‘시므이의 족속’(성전 음악가)이 애통했음을 언급한다.⁵² 다양한 계층을 언급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정화의 노력에 동참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2단계는 샘을 통한 부정의 요소의 제거를 강조한다(스 13:1-6). 야웨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리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샘물’의 특징이 더러운 모든 것을 온전히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온전한 정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우상의 이름들 제거’, ‘거짓 선지자들 제거’, ‘더러운 영 제거’ 등을 언급한다(2절). 1단계에서 공동체가 ‘야웨께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였기에, 여기 2단계에서는 부정을 유발하는 근원의 제거를 강조하는 것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정화라고 할 수 있다. 3단계는 불을 통한 남은 자의 정화를 강조한다(스 13:7-9).⁵³ 과거 공동체의 죄악으로 백성들의 3분의 2가 칼에 의해 죽고 오직 3분의 1만 남게 될 것이지만, 야웨께서는 살아남은 3분의 1을 정화하여 온전한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특별히 이들을 불로 정화하여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연단하여 온전한 회복 공동체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야웨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51 자세한 논의를 위해 장세훈, 윗글, 439-441; Steven Tuell, 윗글, 218-220 참조.

52 장세훈, 윗글, 442.

53 헨슨은 스가랴 13장 7-9절이 11장 4-17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성실한 자들의 운명에 대해 보충하기 위해 스가랴 9-14장이 최종적으로 수정될 때 현재의 위치에 첨가되었다고 보았다. 폴 헨슨, 윗글, 319.

야웨는 이들을 나의 백성'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야웨와 공동체 사이에 깨어진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단락은 정화의 3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스가랴 9-14장은 성전과 거룩의 주제를 앞의 예언서(학개서, 스가랴 1-8장, 말라기서)처럼 언급하지만, 앞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내용을 보충한다.

3. 결론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는 포로기 이후 귀환 공동체의 회복의 과정을 묘사하는 예언서들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것들을 세분하면 학개서와 스가랴 1-8장은 성전 재건 이전의 문서이고, 말라기서와 스가랴 9-14장은 성전 재건 이후의 문서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3개의 예언서는 동일한 구조(2개의 구조)를 지니며, 동일한 주제(성전과 지도자/백성, 성전과 열방, 성전과 거룩)를 기초로 하여 메시지를 구성한다. 첫째로 학개서는 성전 재건(학 1:1-2:19)과 보충 설명(학 2:20-23)이라는 2개의 구조를 지니는데, 전자는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지도자/백성의 문제, 열방의 역할, 거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후자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야웨의 주권과 스룹바벨의 지위에 대해 보충한다. 둘째로 스가랴 1-8장은 8개의 환상(스 1-6장)과 보충 설명(스 7-8장)이라는 2개의 구조를 지니는데, 환상 양식을 통해 학개서의 내용을 보강한다. 특별히 전자는 학개서에서 다루지 않은 지도자의 역할(스룹바벨-정치 지도자, 여호수아-종교 지도자), 야웨의 열방 심판과 열방의 야웨 경배, 성전 재건 및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거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후자는 앞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열방의 역할을 보강한다. 셋째로 말라기서는 6개의 논쟁(말 1-3장)과 보충 설명(말 4장)이라는 2개의 구조를 지니

는데, 특별히 논쟁 양식을 통해 성전 재건 이후에 귀환 공동체에 발생한 문제를 다룬다. 전자는 십일조와 봉헌물과 관련하여 지도자와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열방과 관련하여 야웨의 공동체 사랑과 제사장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혼합결혼과 이혼의 문제와 관련하여 거룩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리고 후자는 우주적 정화 개념을 사용해 거룩의 중요성을 보강한다. 넷째로 묵시 문학적 특징을 보이는 스가랴 9-14장은 2개의 구조를 지니는데, ‘그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3개의 주제를 언급하는 단락(스 9-13장)과 ‘야웨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부족한 주제를 보강하는 보충 설명 단락(스 14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지도자들의 문제와 그것으로 발생한 야웨의 심판의 정당성, 예루살렘을 침략한 열방에 대한 야웨의 심판과 남은 자들의 야웨 경배, 야웨의 영광 썬과 불을 통한 공동체의 정화를 강조하고, 후자는 앞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열방에 관한 주제를 보강한다. 이런 점에서 3권의 예언서는 각각 2개의 구조와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 이전과 성전 재건 이후 귀환 공동체의 회복의 과정을 점층적으로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근주,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스바냐·학개·스가랴·말라기」(서울: 성서유니온, 2018).
- 김영호,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성전과 성벽 완공’에 대한 상호관계 고찰”, 「구약논단」 91집 (2024년 3월), 46-74.
- 소형근, “고대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 ‘골라’ 공동체와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95집 (2025년 3월), 51-80.
- 스티븐 L. 쿡, 「예언과 묵시: 포로기 이후 묵시 사상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이윤경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원제 Cook, Stephen L., *Prophecy & Apocalypticism: The Postexilic Social Setting*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ublisher, 1995).

- 앤드류 E. 힐, 「학개·스가라·말라기」(유창걸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원제 Hill, Andrew E., *Haggai, Zechariah and Malachi* (Nottingham: Inter-Varsity Press, 2012).
- 왕대일, 「묵시문학과 종말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 이운경, 「제2성전 시대의 묵시문학과 사상」(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9).
- 장세훈, 「스가라」(서울: SFC출판부, 2017).
- 폴 헨슨, 「묵시문학의 기원」(이무용/김지은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원제 Hanson, Paul, *The Dawn of Apocalyptic* (Philadelphia: Fortress, 1979).
- 차준희/유윤중, 「학개/스가라/말라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Achtemeier, Elizabeth, *Nahum-Malachi* (Atlanta: John Knox Press, 1986).
- Baldwin, Joyce G., *Haggai, Zechariah, Malachi*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72).
- Boda, Mark J.,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Haggai, Zechariah* (Grand Rapids: Zondervan, 2004).
- Craig, Kenneth M., "Interrogatives in Haggai-Zechariah: A Literary Thread?", James W. Watts and Paul R. House (eds.), *Forming Prophetic Literature: Essays on Isaiah and the Twelve in Honor of John D.W. Watts* (JSOTSup 23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224-244.
- Hill, Andrew E., *Malachi* (New York: Doubleday, 1998).
- House, Paul R., *The Unity of the Twelve* (JSOTSup 97; Sheffield: Almond Press, 1990).
- LeCureux, Jason T., *The Thematic Unity of the Book of the Twelve* (HBM 41;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12).
- Mason, Rex, *The Books of Haggai, Zechariah and Malach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Meyers, Carol L. and Eric M. Meyers, *Haggai, Zechariah 1-8* (AB 25B;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88).
- _____, *Zechariah 9-14* (AB 25C;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93).
- Nogalski, James, *Literary Precursors to the Book of the Twelve* (BZAW 217; Berlin: Walter de Gruyter, 1993).
- Ogden, Graham S. & Richard R. Deutsch, *Joel & Malachi*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7).
- Petersen, David L., *Haggai and Zechariah 1-8*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1984).
- _____, *Zechariah 9-14 and Malachi*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 Pierce, R. W., “Literary Connectors and a Haggai/Zechariah/Malachi Corpu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27 (1984), 277-289.
- _____, “A Thematic Development of the Haggai/Zechariah/Malachi Corpu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27 (1984), 401-411.
- Smith, Ralph L., *Micah-Malachi* (WBC 32;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4).
- Stead, Michael R., *The Intertextuality of Zechariah 1-8* (New York: T & T Clark, 2009).
- Stuhlmüller, Carroll, *Haggai & Zechariah*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8).
- Sweeney, Marvin A., *The Twelve Prophets* Vol. 2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 Tuell, Steven S., “Haggai-Zechariah: Prophecy after the Manner of Ezekiel”, Paul L. Redditt and Aaron Scharf (eds.), *Thematic Threads in the Book of the Twelve* (BZAW 325; Berlin: Walter de Gruyter, 2003), 273-291.
- _____, *Reading Nahum-Malachi*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Inc., 2016).

검색어

학개서, 스가라 1-8장, 스가라 9-14장, 말라기서, 성전 재건

[ABSTRACT]

The Relationship of the Messages of Haggai, Zechariah, and Malachi: Focusing on the Temple and Three Themes

Rae-Yong Kim
Hyupsung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structure of Haggai, Zechariah, and Malachi, which deal with the message of restoration after the Babylonian captivity, and the common themes that they use to compose their messages. To this end, Haggai and Zechariah 1-8 were divided into documents before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and Malachi and Zechariah 9-14 were divided into documents after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and the structure, content, and expression of each prophetic book were investigated. Haggai, Zechariah, and Malachi have the same structure (two structures) and compose their messages based on the same themes (temple and leaders/people, temple and nations, temple and holiness). First, Haggai emphasizes the issues of leaders/people, the role of the nations, and the importance of holiness in relation to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through two structures: temple rebuilding (Haggai 1:1-2:19) and supplementary explanation (Haggai 2:20-23). Second, Zechariah 1-8 emphasizes the role of leaders in rebuilding the temple and restoring the community, YHWH's judgment of the nations and the nations' worship of YHWH, and the need for holiness through two structures: eight visions (Zech. 1-6) and supplementary explanations (Zech. 7-8),

www.kci.go.kr

which were not covered in Haggai. Third, Malachi points out the issues of holiness in relation to the nations, YHWH's community love and the issues of priests, the issues of leaders and people in relation to tithes and offerings, and the issues of mixed marriages and divorce through two structures: six arguments (Mal. 1-3) and supplementary explanations (Mal. 4). Fourth, Zechariah 9-14 emphasizes YHWH's judgment of the nations and their worship of YHWH, the issues of leaders, and the holiness of the community through the spirit, the spring, and the fire through paragraphs that use "on that day" (Zech. 9-13) and paragraphs that use "YHWH's day" (Zech. 14). In this respect, the three prophetic books can be seen as gradually describing the process of restoration of the returned community before and after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centered on two structures and three themes, respectively.

key words

Haggai, Zechariah 1-8, Zechariah 9-14, Malachi, Rebuilding of the Temple

투고일: 2025년 04월 16일

심사일: 2025년 05월 21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5월 22일

www.kci.go.kr